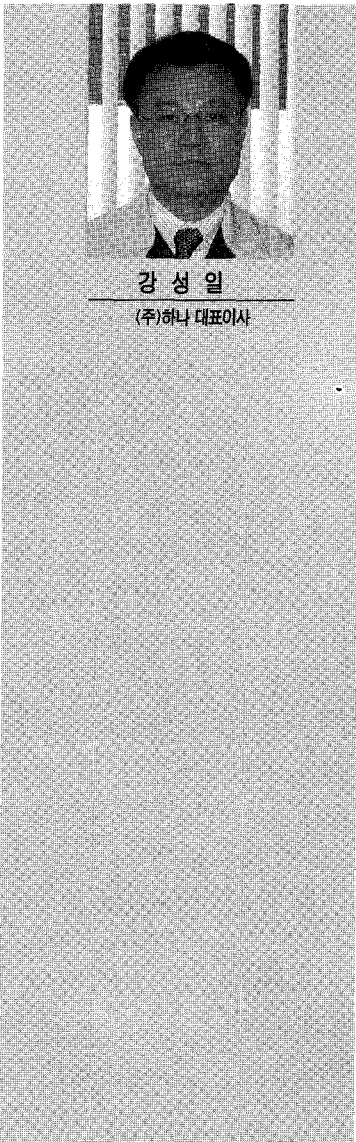


혁신적인 제품 개발, 동종업계 선도

화장품 용기 업계 중 최다 지적재산권 보유



강 성 일
(주)하나 대표이사

아직까지 국내 중소기업은 협소한 환경으로 인해 자금난과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없이 중소기업이 스스로 아이디어 상품, 즉 신제품을 개발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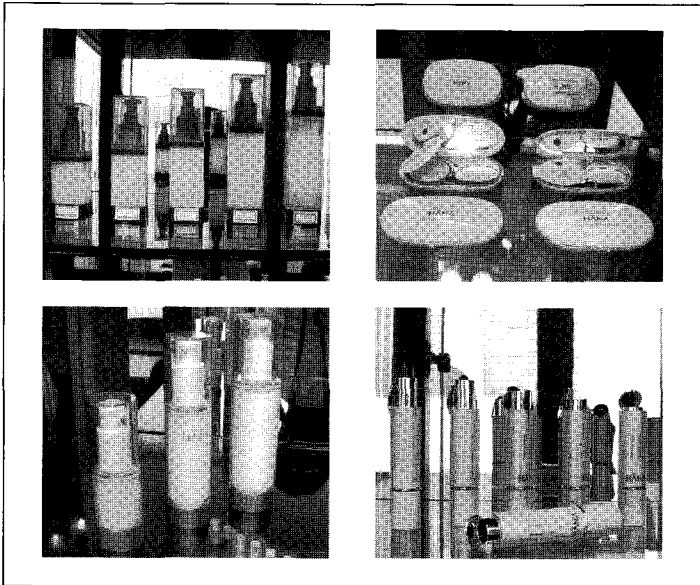
어려운 여건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로 국내 화장품 용기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주)하나(대표이사 강성일)를 찾았다.

(주)하나는 1993년 설립, 신기술을 앞세운 화장품 포장 전문 업체로 놀라운 아이디어로 고기능성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는 기업이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로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위치한 (주)하나



▲ (주)하나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강성일 사장은 (주)하나의 기술자이기도 하다.

강 사장은 태평양, 코리아나 개발실에 근무할 때부터 이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킬 제품들을 이미 설계하고 있었지만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화장품 용기만을 취급하는 국내 현실 여건상 신제품을 개발하기가 어려웠다.

더 이상 외국에서 개발된 화장품 용기가 아닌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제품을 개발하고자 결심을 굳힌 강 사장은

마침내 (주)하나를 설립하게 됐다.

“저희 회사는 큰 기업을 표방하지 않습니다. 큰 기업보다는 최고의 제품을 통해 최상의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기업, 이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기업 목표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위치한 (주)하나는 90여명의 직원들이 고기능성제품 개발과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매진하며 땀을 흘리고 있다.

직원들로 하여금 ‘출근하고

싫은 회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강 사장은 항상 하나의 가족들에게 “과거에 답습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정신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한다. 그 결과 (주)하나는 지난 2003년 수출 유망중소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04년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5년 제12차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우수과제업체 상을 수상하며 결실을 맺고 있다.

100여종의 신제품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 5개를 보유하고 있는 (주)하나는 국내 화장품포장 업계로써는 지적 재산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주)하나의 주요 생산제품을 보면 에어리스 용기, 클릭 타입 용기, 줌 용기, 에어타이트 콤팩트, 오토 립스틱, 그리고 현재 중기청의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할 계획인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이 있다.

에어리스 용기는 딥튜브 타입 용기와 달리 튜브없이 진공 상태에서 내용물이 도출되도

HANA

록 고안된 화장품 용기이다.

클릭타입 용기는 액상 립스틱이나 액상 화장품을 내용물로 하고 용기 앞부분 측면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일정량의 내용물이 분비되도록 고안된 신개념 화장품 용기이다.

쥬 용기는 보통 용기에 있는 노즐은 항상 개방되어 있으나 이 제품은 평상시는 닫혀 있다가 사용시에만 순간적으로 개방되도록 고안되어 있어 용기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변질되는 것을 막아준다.

특히 쥬 용기는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동상을 수상한 제품이기도 하다.

에어타이트 콤팩트는 콤팩트가 내용기 윗부분에 체크밸브(check-valve)라는 특수장치를 장착하여 내용기가 닫힐 때 내용기내의 공기가 동 장치를 통하여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밀폐성을 더욱 강화하고 또한 외용기가 닫힐 때 체크 밸브의 윗부분을 눌러 주어 밀폐

성을 더욱 강화시킨 콤팩트 용기이다. 이 용기는 일본 제품보다 밀폐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토 립스틱은 기존 모든 립스틱이 오버캡을 열고 받침을 돌려서 립스틱 내용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제품은 오버캡이 없고 대신에 립스틱 상부에 덮개가 장착되어 있어 받침을 돌리면 보호칸이 나오면서 순차적으로 덮개가 열려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한 제품이다.

현재 아이디어는 완성단계 중인 디지털 디스펜서는 기존의 디스펜서류의 모든 공기압을 이용하여 화장품 내용물이 도출되도록 고안되어 있으나 이 제품은 공기압보다는 주로 스크류와 기어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내용물이 도출되도록 되어 있어 도출량이 정확하고, 도출이 안되거나 작동이 안되는 불량품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특히 디지털 디스펜서는 개발 완성시 화장품용기 분야에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용기로 (주)하나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다.

현재 (주)하나는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대만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인 태평양, CTK, 나드리, 코스맥스 등과 거래하고 있다.

작년 7,975백만원 매출을 올린 하나는 올해 백억대를 목표로 모든 직원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3~4년 연구끝에 개발된 하나의 제품이 전시회를 통해 외국에 홍보돼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백억대 매출 달성은 근 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적인 화장품 케이스는 대량 물품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이 거의 잠



▲ (주)하나의 출고 예정중인 제품들

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 사장은 “국내 업체는 이미 외국에서 개발된 용기를 카피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고기능성 제품 개발을 통해 거대한 중국시장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품을 개발할 때 내용물의 기능성 보호, 보존 유지, 편리성, 원가 절감 및 가격 경쟁력을 포인트로 잡고 연구하고 있는 강 사장은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용기를 신제품으로 홍보하는 업체를 볼 때마다 허탈

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화장품 회사들은 국내 신기술 제품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정당한 평가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 화장품 회사들은 이미 외국에서 단종된 제품을 신제품인 줄 알고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신제품 개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주)하나와 같은 업체들이 힘이 빠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강 사장은 “외국 전시회를 나갈 때마다 외국 바이어들이 하나의 제품을 보고 아

이디어에 대한 놀라움을 표시할 때마다 신제품 개발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회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신유형 제품으로 거대한 중국시장과 맞설 것이며 또한 자신도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내 최고 화장품 용기 전문 업체로써 손색이 전혀 없는 (주)하나. 국제적인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한발자국씩 움직이고 있는 (주)하나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이한얼 기자